

“추석이 다 뭐니까... 일자리 구해야죠”

구직자 62% “채용 하나라도 놓칠 수 없어... 계속 구직 활동” 광주·전남 구직자 2만명...빈 일자리 1만건 ‘미스매치’ 여전

광주·전남 구직자가 2만명이지만 인재를 찾지 못한 빈 일자리 수도 1만건에 달해 ‘일자리 불균형(미스매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지역 구직 건수는 광주 1만533건·전남 1만397건 등 2만93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구직 건수는 41만116건으로, 1년 전보다 15.5%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빈 일자리’ 수(상용·임시·일용 포함)는 광주 2955명·전남 6548명 등 9503명으로 나타났다. 빈 일자리는 7월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말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빈 일자리 수는 광주 1613명(-35.3%)·전남 1020명(-13.5%) 등 2633명 줄어 들었다.

광주지역에서 빈 일자리를 산별별로 보니 제조업이 28.7%(8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운수 및 창고업(23.8%·702명)이 뒤를 이었고 도매 및 소매업(15%·443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12.5%·368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177명), 건설업(4.6%·13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빈 일자리 수가 1%도 되지 않는 산업은 광업(0명),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1명), 교육 서비스업(3명), 공공행정(3명), 금융 및 보험업(9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23명), 부동산업(25명) 등 8개 부문이었다.

전남지역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23.3%·1525명) 빈 일자리가 제조업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 빈 일자리는 1261명(19.3%) 있었고, 도매 및 소매업(17%·1110명), 숙박

및 음식점업(12%·787명), 운수 및 창고업(11.9%·781명), 건설업(5.1%·3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행정·국방 부문과 전기·가스는 빈 일자리가 한 개도 없었고 광업(1명), 부동산업(3명), 금융 및 보험업(4명), 정보통신업(19명), 예술·스포츠(59명) 부문도 미미한 비중을 나타냈다.

올해 1분기 지역 300인 미만 근무 사업장의 미충원인원은 광주 1239명·전남 521명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미충원인원은 광주 51명·전남 58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 사업장은 광주 4157명·전남 4384명에 달하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지만, 대규모 사업장 부족인원은 광주 337명·전남 118명이었다.

한편 취업정보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2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명 중 3명(62.2%) 풀리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계속 구직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채용이 줄어들 수 없어서’(37.9%), ‘코로나19로 여차피 집에만 있어야 해서’(32.4%), ‘수시 채용 진행으로 목표 기업의 공고가 언제 뜰지 불안해서’(22.9%), ‘생활 리듬을 깨고 싶지 않아서’(14.8%), ‘구직활동 핑계로 진척들을 피하고 싶어서’(7.2%) 등 답변도 있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은리더스클럽” 아동센터에 위문품 광주은행과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은 22일 광주 서북구 벨전지역아동센터와 서구 비전스지역아동센터에 찾아 선금과 컴퓨터, 학습교구를 전달했다. 뒷줄 왼쪽 세 번째부터 송종욱 광주은행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김홍균 광은리더스클럽 회장. <광주은행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32.59 (-56.80)	↓ 금리(국고채 3년)	0.897 (-0.007)
↓ 코스닥	842.72 (-24.27)	↑ 환율(USD)	1165.00 (+7.00)

배추 한포기 1만2000원 상추·풋고추 등 채소 2주 전보다 20~30% 올라

2주 전 1만원 하던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2000원으로 20% 뛰었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 주요 농축산물 소매 가격을 조사한 ‘얼마오 2016호’를 발행했다.

배추, 상추, 풋고추, 양파 등 주요 채소 가격은 2주 전인 7일과 비교해 20~30% 대 급등했다.

상추 100g 가격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상승했고, 풋고추(100g)도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 올랐다. 양파 1kg은 25% 오른 2500원이었고, 애호박(1개)은 10% 상승한 2200원을 나타냈다.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한 사과 10개 값은 2만5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12% 올랐다. 배 10개 가격은 3만5000원으로 2주 전과 같았다.

한우등심 1등급 100g은 2.1% 오른 8330원에 팔렸고, 삼겹살 100g은 3.4% 상승한 2160원에 거래됐다.

특란 30개 한 판 값은 4660원에서 4900원으로 5.2% 올랐다.

2주 전보다 가격이 내린 품목은 수입량이 증가한 견고추(-2.4%)와 장마로 품위가 떨어진 포도(-7.7%)가 있었다.

aT 측은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이동제한 등으로 차례상 품목을 감소할 소지는 있다”며 “하지만 긴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단기간 출하회복이 어려운 호박, 파프리카 등 채소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는 당분간 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지방국세청, 비대면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송기봉)은 22일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장 등 주요 관리자만 참석한 비대면 형식으로 ‘광주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국세청 제공>

교직원 ‘마인드 클리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오는 10월6일부터 12월4일까지 지역별로 사학교직원의 코로나19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마인드 클리닉’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국립나주병원과 대전센터(10월)를 시작으로 서울센터(11월), 나주본부(11월17일), 부산센터(12월)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1명당 소요시간은 50분이다.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와 일대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벌칙성 부과금 5년간 454억

혁신도시 전력그룹 4곳 469억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력그룹사 4개사가 지역에 이전한 뒤 5년 동안 낸 벌칙성 부과금이 46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에 담겼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4개사가 낸 벌칙성 부과금은 468억6758만원으로 집계됐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징수당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

한전은 지난 2015년 벌칙성 부과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2016년 68만8000원, 2017년 379억4400만원, 2018년 63억6300만원, 올해 7월 말 8억5000만원 등 총 454억8400만원을 납부했다.

한전KPS는 6억8800만원, 한전KDN 6억8200만원, 전력거래소 1300만원 등도 벌칙성 부과금을 냈다.

한전의 경우 가산세가 4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15억4800

만원, 과태료 240만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5년 간 납부금의 83.5%인 380억원 가량을 냈는데,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이었다.

한편 산자부 산하 40곳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은 약 1353억4000만원이었다.

기관 별로는 한전이 가장 많았고, 강원랜드(약 254억원), 한국수력원자력(약 230억원), 한국가스공사(약 127억원)가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전남농기원 아열대농산물 활성화 논의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전남농업기술원이 전남 아열대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함께 맞췄다.

22일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은 전남농업기술원과 아열대농산물 육성을 위한 협약 체결 이후 경쟁력 있는 아열대농산물 생산과 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략회의를 열었다.

경쟁력 있는 전남 바나나 생산을 위한 상품화·후속시설 설치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토론했다.

전략회의에서 전남농업기술원은 고품

질 아열대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 지원과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농협을 농가가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 제값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앞으로 두 기관은 아열대농산물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목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젊은 청년농들이 돌아오는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제 역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군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